

# 전남 기초생활 부정수급 5년간 1000명

## 영동한 이들에 10억 지급

## 미환수금액 2억 넘어

## 검증시스템 강화 시급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지난 5년간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온전히 지급돼야 할 기초생활보장비 10억원 가량이 대상자가 아닌 전혀 영동한 이들에게 지급된 셈이다.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세금이 영동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확한 검증시스템

을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전남도의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는 모두 9억3040만원(1077건)이며 이중 돌려받은 금액은 전체의 68.2%인 6억3430(95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돌려받지 못한 미환수금액은 전체의 31.8%인 2억961만원(181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환수 사유로는 징수중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손처분(20건)·장기체납(9건)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환수결정액 1억9450만원(미환수액 3400만원) ▲2012년 2억3740만원( 3670만원) ▲2013년 1

억2020만원( 830만원) ▲2014년 9430만원( 1530만원) ▲지난해 2억8380만원( 2억160만원) 등이다. 각 시군별로 미환수금액 규모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보성 등 지난 5년간 미환수금액이 단 한 푼도 없는 반면, 성은 52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광과 장성 등 각각 2060만원·196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자치단체장과 해당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미환수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을 방증해 주는 것인데, 부정수급을 예방해 재정낭비를 줄여야 빈곤층 지원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다. 이를 위해선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 현황 및 목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들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수급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맞춤형 급여제도의 개편을 앞두고 정부 부처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모두 8만7609명(6만533세대)이다. 지난해엔 8만8568명으로 세대 수는 6만391세대였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전남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1위

전남개발공사(사장 양지문)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종합만족도 89.17점으로 광역자치단체 산하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1위를 차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지방공기업 34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및 면접조사를 통해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고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전남개발공사는 ▲서비스환경 90점 ▲서비스과정 90.3점 ▲서비스결과 88.8점 ▲사회적만족도 89.17점으로 광역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와 전남도 산하 지방공기업 중 최고 기관에 올랐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85.4점으로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0년도 이후 줄곧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dol@

## “시정은 구호와 선언만으로 실현할 수 없다”

### 참여자치 21, 광주시정 평가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27일 “임기 전반기 2년을 마친 윤장현 광주시장은 혁신에 대한 철학·비전·방향 없이 자기만 옳은 길을 가고, 변화를 추구하면 공무원들이 따라오고 행정이 변화할 것으로 여긴 것이 패착이었다”면서 “시민의 시정은 구호와 선언으로만 실현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2년 광주시정 평가 기자회견을 하고 “윤 시장은 이런 위기를 인정하고 남은 2년간 시민에게 약속한 ‘시민의 시대’, ‘시민 중심 시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시 공무원노조의 전공

노 가입, 옛 전남도청 건물 원형 훼손 등 과정에서 윤 시장은 광주정신에 맞는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도시철도 2호선 결정 과정에서 보인 리더십 부재와 시정혁신 성과 부족도 낙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참여자치21은 분청과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단계별로 직접 고용해 정규직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시아 재해 긴급구호협의회 발족,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설립, 하계 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광주·전남 상생 노력 에너지·자동차 밸리 조성 노력 등도 성과로 인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무죄받은 여수시청 국장

## 전남도 중징계 처분 논란

전남도가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수시청 전 국장(4급)에게 징계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국장은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전남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1년여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전 국장이 전남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재직할 때 오룡지구 택지개발과 관련, 기술자평가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 운영하고 예산편성 전 부당지출행위를 했으며 각종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감사에 적발돼 오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 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중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전 국장에 대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도와 여수시 일각에선 중징계가 지나치다는 말도 나온다.



광주학생 인권개선방안 토론회

김동찬 광주시의회 부의장의 사회로 열린 제 44차 정책토론회인 '광주학생 인권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27일 오후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광주시의회 제공>

## 광주에 'ICT융합 차량용 HUD' 전진기지 설립

### 산자부 공모 선정 10억 확보

광주에 자동차 HUD(Head-Up Display·전방시현장치) 전진기지가 설립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육성 공모사업'에 'ICT융합 차량용 HUD시스템 생태계 조성사업'이 선정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시가 제안한 '차량용 HUD(Head-Up Display, 전방시현장치)시스템 개발'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립전파연구원과 연계해 현재 일부 차량에 장착된 전방시현장치의 성능을 크게 개선하는 사

의 핵심 기능은 물론 통신·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한 해상도로 표출하게 된다.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크게 높이고, 자율주행차 개발과 함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차량용 HUD시스템 개발은 대학교 기업이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과 연계해 ICT를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융합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선정된 과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의 핵심 기능은 물론 통신·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한 해상도로 표출하게 된다.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크게 높이고, 자율주행차 개발과 함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차량용 HUD시스템 개발은 대학교 기업이 광주전남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과 연계해 ICT를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융합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선정된 과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복지재단 산하 본부장 '자리 갈아타기' 논란

### 효령노인타운 본부장 사퇴 후

### 빛고을노인타운 본부장 옮겨

광주복지재단 산하 본부장의 '자리 갈아타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복지재단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본부장에 문해옥(53)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을 임명했다. 이번 공모는 나모 본부장이 1년여 만에 사퇴하면서 진행됐으며 4명이 마지막까지 경쟁했다. 서류 심사 및 면접을 거쳤으며 면접위원은 교수와 시청 간부 등 3명이 맡았다. 광주복지재단은 면접에서 문 본부장이 운영 포부와 비전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특히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으로 보여준 열정과 짧은 재임기간에 이룬 많은 성과가 큰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본부장이 지난해 3월 공모

를 거쳐 3년 임기의 재단 산하 기관인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에 임명된 뒤 1년여 만에 중도사퇴하고 자리를 옮겼다는 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효령본부장이 2급인 반면 빛고을 본부장은 1급이어서 자리 갈아타기를 통해 사실상 승진과 함께 임기가 더 되는 셈이 됐다. 2곳 본부장 임기는 모두 3년이다. 특히 문 본부장은 직전 본부장직을 유지한 채 삼급 본부장에 응모했고, 합격 사실이 공시된 후에도 효령본부장으로 관련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올라 있다. 문 본부장은 노인복지와 관련한 경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자격 시비가 일기도 했다. 전직 북구의원인 문 본부장은 중등교사 경력이 있다. 광주복지재단은 조만간 공석이 된 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LEAD** 광주·전남지역 유일! 교육부 인증 평생교육직업대학

취업 잘되는 대학, NCS를 선도하는 대학

# 목포과학대학교 평생직업교육대학

분류	과정명	분류	과정명
자격증교육과정	아동요리지도사	건강·웰빙과정	인테리어디자인과정
	양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과정		웰빙통합 기능운동인력 양성
	제빵기능사 자격취득과정		맞춤형 힐링댄스 인력양성
	바리스타 2급 자격취득과정		심판교육과정
	국가공인 분재재배 2급과정		공연예술과정
	심리상담 지도사 과정	생활일식요리과정	
	학교폭력 예방 지도사	모래상자치료사과정(모래놀이치료)	
	방과후 아동 지도사	취업 직무향상과정	디자인커트(남성커트)
	아로마지도사		블로우드라이
	굴삭기 운전		네일아트
지게차 운전	CO2 용접		
치과건강보험청구사 3급교육과정	선박선체설계과정		

과정문의 061) 270-2515~9

http://lead.msu.ac.kr

※생활지원 - 원거리수강생,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우선지원

**취업**  
직무향상  
과정

**자격증**  
과정

**건강**  
웰빙  
과정

**재직자**  
향상과정